

“대통령, 종러 영공침범 강력 항의해야”

한국당 원유철·백승주·김영우 “안보 위엄 침식”

“즉시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 기획하고 재개해야”

“국방 위엄 침식에 주변국 동시다발적 위협 받아”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4일 “대통령은 지체없이 종러 양국이 연합해 대한민국 영공을 침공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원유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장과 백승주 의원,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대한민국 안보주권에 대해 러시아, 중국, 일본이 동시에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하는 것,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내세우는 망언을 규탄한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특위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종러 양국이 연합해 대한민국 영공을 침공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라”며 “우리 영해와 영공이 한반도

주변국 각축의 장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기획하고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변 국가와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군사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주변국으로부터 동시다발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대한민국 위엄, 안보 위엄, 국방 위엄이 침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방 위엄은 강한 군사력, 한미연합태세를 근간으로 한다. 한미연합태세에 균열이 보일 때 주변국의 반복적이고 시종적인 도발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세 말에서 20세기 초에 스스로 군대를 해체하고 무능한 안

보외교로 망국의 한을 교훈으로 삼아 강력한 국방, 안보 외교 체제를 구축해 도발 의지를 소멸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우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거의 지금 외교 관계, 대외 관계를 오로지 남북 교류라든지 북에 올인하는 바람에 미중러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외교가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며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삼각체제가 국방에서부터 복원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유철 위원장도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군사연합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공 영해 침탈 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2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엔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불참했다.

손학규 “유승민, 혁신위 개입 진상조사…윤리위 독립적 판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유승민 의원의 당대표 퇴진 종용 발언 의혹 진상조사에 대해 “그건 제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구이니 거기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는 안병원 전 국민의당 당무감사위원장을 윤리위원장에 임명했다.

유 대표 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묻자 “어제 제가 얘기한 것 그대로”라고 답했다.

그는 전날 경기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남부지역 당원간담회에서 유 전 대표 논란에 대해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제대로 사실을 밝혀겠다”며 당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혁신위원장에 손 대표 퇴진안을 요구하는 등 혁신위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의 불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당이 여러 분란에 싸인 것은 이해하지만 당내분을 수습하고 곧바로 총선체제로 진입해, 총선 승리와 이를 통한 우리나라 정치구도를 바꾸는 일이다. 같이 힘을 합쳐 진력해줄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4·3 보궐선거 당시 참원성산 후보였던 이재한 창원 성산구 지역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손 대표의 지인이 선거를 총괄 기획했다

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는 “저는 창원에 가서 최선을 다해 이 후보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뿐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 사심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학규를 잘 아실 거다. 그런 편견을 갖고 세상을 보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진상조사 실시 뜻 여전

오신환 최고위 불참에

“총선 체제에 전력하길”

“당권싸움 단식명분아냐”

혁신위에서 제기한 안건을 받을 생각이 없는지에는 “그것은 사무총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답했다. 내부 갈등 수습의지와 방법에 대해서는 “갈등을 수습하고 있지 않나”라며 “당헌당규에 의해 (수습)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단식하다 일원한 권성주 혁신위원의 병문안을 갈 생각이 없는지 묻자 “얘기를 들어보니 건강은 좋다고 한다. 단식 후 입원은 건강회복 (목적)이니까 제가 특별히 방문할 필요성은 못 든다”며 “지도 단식이 끝난 뒤 나흘인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아무도 문병오지 않았다. 병이 아니니까 문병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권 혁신위원의 단식에 명분이 없다고 보는지 묻자 “당권싸움은 단식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심상정 대표 “정의당, 내년 총선 광주 전 지역구 출마”

민주당과 광주시민의 삶 놓고 치열한 경쟁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내년 총선에서 광주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출마시켜 당선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민의 삶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 집권 경쟁의 진양지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공천 경쟁에만 매달리는 낮은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사람 및 명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정치판 전체를 흔드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했다.

심 대표는 “39년 전 광주시민들의 혁신이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듯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시민들이 촛불혁명을 정치혁명으로 완성시켜 달라”며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대표 정당으로 발돋움해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대표는 “최근 광주형일자리가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어렵사리 케도에 올랐다”며 “정의당은 4대 핵심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월·하청 관계의 연대적 개선이 지켜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심 대표는 “광주시가 적정 임금을 뒷받침할 만한 적정 복지 등 사회 임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광주형일자리가 녹색경제로 나아가길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박지원 “조국 ‘폐북정치’, 대통령 위한 것…아주 잘했다”

“민주당이 안해서 조국 나선것…집권여당 자격 없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일 여론전’을 벌이는 데 대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평가하며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지 않느냐. 비록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더라도 대통령을 위해 한 마디 한 거다. 조 수석마저도 안 하면 지금 누가 하느냐”

고 말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도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여당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할 테니 조국은 민정수석 길을 가라는 게 원칙”이라며 “자신들이 안 해서 조 수석이라도 나서는데 ‘하지 말아라’는 건 바보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의 뒤로 따라

가는 것이다. 그 그들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라며 “당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 종러의 독도 침범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하고 일본을 향해서도 ‘이게 무슨 소리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하고 나와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바보니까 그러다.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면서 “이렇게 당해도 말 한 마디 못하는 집권여당, 이렇게 당해도 일본편에 서서 말하는 자유한국당, 이게 얼마나 불행한 국회냐”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전날(23일) 중국과 러시

아의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한국당이 ‘안보공백’이라고 논평한 데 대해서는 “안보공백이면 군용기가 퍼서 발사하고 불리겠느냐”며 “본래 그분들은 진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당의 최근 일본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은 국회, 여야가 단결해 총을 일본으로 쏠 때인데 민주당은 한국당에 쏘고, 한국당은 민주당에 쏘니까 꼴인 것”이라며 “이런 걸 보고도 한국당이 따따따하는 건 친일 DNA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에 대해서는 “무슨 자리만 생기면 친박들에게 다 나눠주고 황교안 리더십이 이러면 (지지를)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도로친박이 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